

#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회장기대회 복식 우승

같은 팀끼리 결승서 대결... 금·은 단체전·단식에선 동메달 3개 획득  
올 3개 대회 금 3 등 메달 8개 수확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회장기 대회 정상에 올랐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최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1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에 출전해 김운진·박빛나(이상 3년)조가 복식 우승을, 신희선·김여빈(이상 1년)조가 복식 은메달, 단체전과 단식에서 동메달 3개를 휩쓸었다. 복식 결승에서는 순천여고가 패권을 다했다. 김운진·박빛나는 막내 신희선·김여빈을 4-0으로 제압,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누어갔다. 개인 단식과 단체전에서도 메달 수확이 이어졌다.

김하은(3년)은 4강에서 경북조리과학고 김진아(2년)에게 2-4로, 김가은(2년)도 4강에서 경북 우

석여고 김효정(2년)에게 1-4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여고는 김운진, 박빛나, 신희선, 김여빈, 김하은, 김가은, 강주현(1년)이 출전한 단체전 준결승에서 우석여고에 0-2로 승리를 내주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여고는 이 경기로 지난 9월 중별선 수권대회 단체전 무관의 아쉬움을 날렸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올해도 3개 대회에 출전해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올해에만 금메달 3개를 비롯하여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팀을 입증했다. 순천여고는 지난해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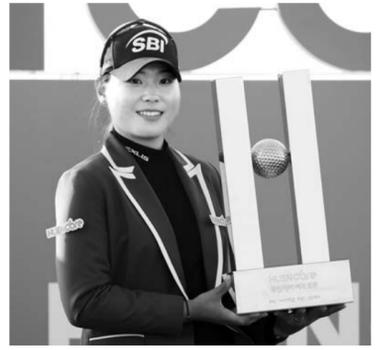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 김현순 지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하나 되어 훈련을 잘 따라주며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신 이상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여고 테니스팀. 왼쪽부터 신희선, 김가현, 김여빈, 강주현, 김하은, 김운진, 박빛나, 김현순 코치.

## KLPGA 첫 승 이소미 세계랭킹 42위로 도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달성한 완도 출신 이소미(21·사진)가 세계랭킹 42위에 올랐다. 25일 전남 영암에서 끝난 KLPGA 투어 휴먼케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소미는 지난주 57위보다 15계단이 오른 42위가 됐다. 고진영(25)이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 김세영(27)이 2위, 박인비(32) 5위, 박성현(27) 8위, 김효주(25) 10위 등 10위 안에 한국 선수 5명이 포진했다. 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에서는 임희정(20)이 1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6일 미국 조지아주 그린즈버러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브 챔피언십을 제패한 엘리 맥도널드(미국)는 62위에서 44위로 18계단 상승했다. /연합뉴스

## 영암서 ASA-KIC컵 3·4라운드 함께 열려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아마추어 대회인 2020 ASA-KIC컵 3·4타블라운드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지난 24~25일 열린 2020 ASA-KIC컵 3·4타블라운드는 프리타켓트라이얼(F-TT(언더·오버)), 바이크(언더·오버), KIC-M(BMW 단일 차종 경주), 드리프트 외에 한국형 포뮬러로 주목받은 KF-1600 등 총 7개 클래스로 진행됐다. 투어링카 레이스는 정해진 시간 내에 베스트 기록을 달성하는 타임 트라이얼(KIC-M) 방식과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이 지정한 기록에 가장 근접한 순위로 정하는 프리타켓트라이얼(F-TT(클래스)) 방식을 적용, 3개 클래스로 진행됐다. KIC-M클래스 3라운드 우승은 정의석이 거머쥐었고, 4라운드는 김규용이 우승을 차지했다. F-TT클래스 언더 3라운드 우승은 김세욱이, 4라운드는 김동식이 1위에 올랐다. F-TT클래스 오버 3라운드는 김경완이 1위를, 4라운드 우승은 최상용이 거머쥐었다. 바이크는 배기량 400CC-500CC까지 참가 가능한 언더(UNDER)-500과 오버(OVER)-500(600CC이상)클래스로 진행됐고, 경기 방식은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진행됐다. 3라운드 바이크 언더에서는 전영재가 1위, 4라운드는 심동국이 1위에 올랐다. 김동진은 바이크 오버 3,4라운드 우승을 모두 거머쥐었다. 드리프트는 1대1 배틀방식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었으며, 3라운드 드리프트 세미에서는 이윤호가 1위, 4라운드 드리프트 프로에서는 양진홍이 1위에 올랐다. KF-1600 포뮬러 3라운드 우승은 최연소(17세)인 안도현이 거머쥐었으며, 4라운드 우승은 지철강이 차지했다. 한편, 2020 ASA-KIC컵은 ㈜ASA가 후원하고 있으며, 다음달 14-15일에 마지막 5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육상 꿈나무들 "달려라 하니" 배운진(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7일 충북 보은군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여자 초등부 100m 결선에서 역주하고 있다. 이날 배운진은 12.61초를 기록한 뒤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육상 유망주 최명진 8일만에 또 신기록

11초62...초등 100m 기록 경신  
한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최명진(12·이리초교)이 8일 만에 한국 초등부 100m 기록을 또 바꿨다. 최명진은 27일 충청북도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대회 초등부 남자 결선에서 11초62의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최명진은 지난 19일 문체부장관기 전국사·도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11초67을 기록, 1993년 김용태가 작성한 종전 한국 초등부 기록 11초71을 27년 만에 경신했다. 8일 사이, 최명진은 더 속도를 높였다. 12초55의 2위 정병준(전국초교)과는 레이스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졌다. 자신의 기록과 싸운 최명진은 자신의 한국 초등부 최고 기록을 0.05초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웠다. 최명진은 한국 남자 초등부 200m 기록(23초71)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명진이 남자 초등부 100m 결선에서 1위를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족 스프린터' 리퍼, 도쿄올림픽 출전 불허

스포츠중재재판소 "공정 경쟁 아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크 리퍼(31·미국)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CAS는 27일(한국시간) "리퍼가 사용하는 의족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의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선수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사용하는 의족으로는 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AS는 세계육상연맹을 향해서도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상 단거리 선수인 리퍼는 "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다"며 의족 사용을 불허하는 세계육상연맹을 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CAS는 세계육상연맹의 손을 들었다. 리퍼의 400m 개인 기록은 44초30이다. 세계육상연맹이 집계한 2020년 남자 400m 기록 44초91보다 좋다.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른 2019년 400m 기록을 봐도, 리퍼의 44초30은 최상위권인 9위다. 리퍼는 세계육상연맹이 자신의 도쿄올림픽 출전을 허락하면 미국 대표 선발전에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2019년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도 꿈꿨다. 그러나 세계육상연맹은 "의족이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족과 경기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세계선수권 출전을 허락할 수 없다"며 "특히 리퍼는 의족을 신으면 현재 상-하체를 보고 계산한 '추진 키'보다 15cm 더 커진다"고 리퍼의 출전을 막았다. 리퍼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가 짧았다. 그의 부모는 의족을 마련해 리퍼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즐기게 했다. 리퍼는 장애인 육상에서 두각을 보였고, 2012 런던 패럴림픽 남자 400m 은메달, 200m 동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2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총이꽃
3관	태슬라, 위플래쉬
4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5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파이널컷
6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9관	담보
7관 씨네카를	소리도 없이 부니베아: 원시시대 대모험
8관 씨네카를	미스터트롯: 더 무비, 태양의 소녀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집시'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창문 너머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 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